



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술식, 대담한 性

비아그라는 본래 심장병의 치료제로 개발되 었다가 우연히 그 부작용으로 발기가 되는 것을 관찰하고 성기능 치료에 사용하게 된, 재미있는 탄생 배경을 가진 약물이다.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가 약 10년 전 시판되 면서 그 관심과 기대는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명성에 비해 효과와 부작용 등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여 그에 대한 오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비아그라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 약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줘야 연료가 연소되면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본인의 성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진다. 본인은 그다지 관계하 고 싶은 성 욕구는 없는데 무작정 약만 먹으면

비아그라 먹고도 '소식' 없을 수 있다

발기가 될 거리며 복용하는 것은 약물의 특성을 모른 탓이다. 본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은 의지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약물의 최대한의 효능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심장·신장·간 질환자는 금기

그것은 근본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를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 복용 시 술을 먹은 것처럼 눈이 충혈되어 얼굴이 발개지는 홍조 증상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둬야 한다. 환자 중 드물게 약물 복용 후 위와 같은 부작용이 두드러져 복용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도 가능해 된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항상 주의해서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 심전도와 혈압을 검사

하여 심장에 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심장병이 있어 질산염 제제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혈압이 심하게 높아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도 복용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심각한 간이나 신장의 문제가 있을 때도 복용은 금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처음 출시당시에 우려했던 부작용은 10년이 지난 지금엔 그렇게 까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즘은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앤디라 등의 다른 경구용 치료제가 보급되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각각의 약물들은 근본적인 원리를 서로 공유하면서 효능 면에서 각각의 장점을 달리한다. 따라서 A약물에 신통치 않은 환자에게 B약물에는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도 흔

히 보게 되는데 본인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두 번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복용해 본 다음에 자신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발기부전, 술·담배 삼가야

시중에 나온 경구용 약물들은 용량에 따라 모두 2가지 종류로 판매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작은 용량으로 시도를 해보고 만족할 만한 발기가 안 되면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또한 약물에 따른 최대혈증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에 맞춰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이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본인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고 생각할 경우는 부작용을 생각해 더 작은 용량으로 조금씩 복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발기부전, 그것은 어찌면 극복하기 힘든 노화의 한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평소에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을 늦추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함께 풀어봅시다 < 2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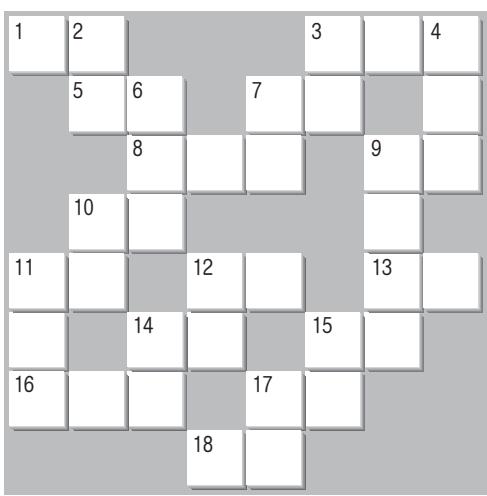
→ 가로풀이

1.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음. 또는 그런 시합. 3.연말에 한 해를 보내며 그해의 온갖 괴로움을 잊자는 뜻으로 베푸는 모임.→송년회, 5.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 그들은 여당의 정치노선과는 그를 달리 해 왔다. 7.의견이나 생각을 내놓음.→제의, 진문가의 ~. 8.월요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한 주의 마지막 날. 9.힘겨운 일을 억지로 우겨서 할. 그 몸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10.미국의 돈. 11.작군등을 산 채로 잡음. 12.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사업이나 자신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 봉급, 노임, 자재(地代), 이자 등이 이에 해당 한다. 13.그림의 모양이나 형태. 또는 수학에서 점, 선, 면, 체 또는 그것들의 집합을 통하여 이르는 말. 14.윗사람이 아래사람에게 시킴. 장군은 육군에게 공격 ~을 내렸다. 15.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

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16.술을 권하는 노래. 17.직장 학교 군대 등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18.어떤 단체의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 것은 부하들의 ~이 해야해졌기 때문이다.

↓ 세로풀이

2.착하고 어진 행실. ~을 베풀다. 3.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일본의 일부 장관들은 가끔씩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을 한다. 4.어린 아이들을 벌주기 위해 때릴 때 쓰는 작은 나뭇가지. 6.난방 등을 위해 물을 가열해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외래어) 7.여럿 가운데서 첫째가는 것. 세상에서 ~ 우스운 이야기. 9.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별천자. 10.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11.행정 구역과는 관계



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등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활동하는 범위. KTX로 인해 전국은 사실상 일일 ~이 되었다. 12.영관 계급의 하나. 중령의 아래, 대위의 위로 영관 계급에서 가장 낮은 계급. 14.명망이 높은 가문. 또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름이 난 사람. 15.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17.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쉰다.

3.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일본의 일부 장관들은 가끔씩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을 한다. 4.어린 아이들을 벌주기 위해 때릴 때 쓰는 작은 나뭇가지. 6.난방 등을 위해 물을 가열해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외래어) 7.여럿 가운데서 첫째가는 것. 세상에서 ~ 우스운 이야기. 9.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별천자. 10.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11.행정 구역과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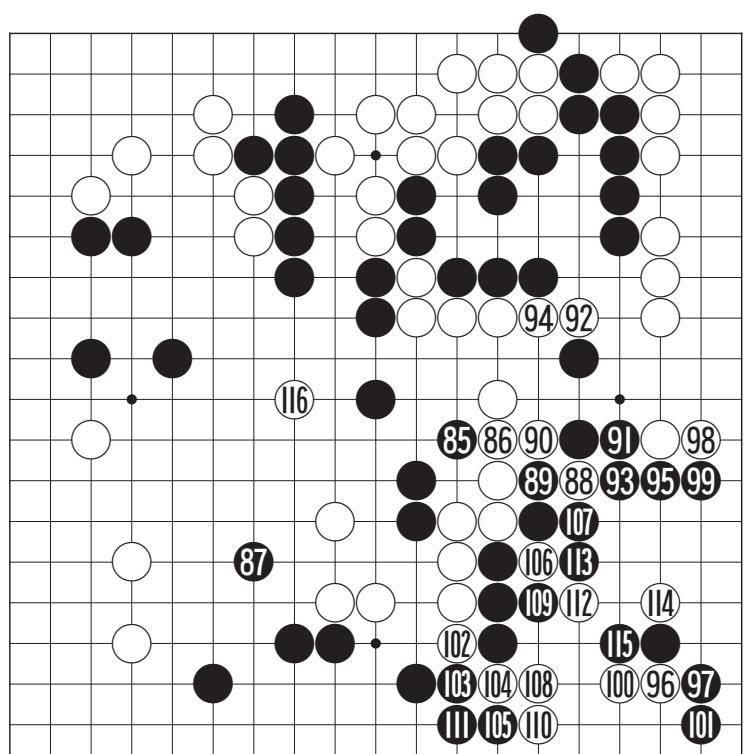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57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안영준·광양시 진월면
최준혁·광주시 북구 두암동

▲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제16회 광주일보
직장대항
단체 3회전

빈나간 연결의 맥점 5보(85~116)

白 박명수 5단 (능협) 黑 이창준 5단 ((주)송림)

이창준 어 막아오자 우하귀에 엄청난 흑 집 5단이 흑 이 확정되어 버렸다. 그래서 92로 연 85로 단집 결에 급급한 수가 지탄을 받아 마땅한 수로 빈나간 맥점이었던 것이다. 백 92로는 무조건 '참고도'의 백 1로 막아서 뷔여야 했다. 흑 2 또는 어 떻게든 연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3을 뒤늦게 귀에서 수단을 부려 보지만 이 5단의 정확한 수비에 속수무책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DO 교보생명

바둑 소식

조훈현, 이창호 제약

조훈현 9단이 지난달 29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한국물가정보 보프로기전 B조 대국에서 이창호 9단을 162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리그 전적 2승 1패로 결선에 진출했다. 조 9단은 초반 우연에서 기세를 잡은 뒤 좌상귀에서도 많은 이득을 챙겼으므로써 승세를 굳혔다.

조 9단은 지난 2004년 12월 한국리그에서 이창호를 이긴 뒤 5연패를 당한 끝에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불가정 보배 결선 진출자는 A조 이세돌·강동윤, B조 흥성지·조훈현, C조 최철한·이영구, D조 원성진·최원웅이다. 우승 상금은 2천500만원.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음 5월 18일 丁酉)

36년생 옥심을 버리면 재물도 생기리라. 48년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야 한다. 60년생 아들 말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84년생 부모 형제가 도우니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01, 41

37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마음을 끌게 쓰라. 49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이 풀린다. 61년생 이상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73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긴다. 85년생 먼저 생각하고 말하면 천운이 온다. 행운의 숫자: 11, 21

38년생 사람과 시비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0년생 구설수 시비송사 등등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다. 62년생 자신의 일으로 끌어온 명성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74년생 그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13, 33

39년생 남여사이에 구설수로 명예에 흠집이 달가 무섭다. 51년생 생인생의 후반전 계획이 중요하다. 63년생 부자간에게 많은 대화가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75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히나 예상을 놓치지 마라. 행운의 숫자: 19, 30

40년생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살펴보라. 52년생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 잘하라. 64년생 이는 힘들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손길이 없으리라. 62년생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행운의 숫자: 20, 29

41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마음을 단단히 하라. 53년생 누구 자신의 재주를 믿지 말고 준비하라. 65년생 힘 출때와 힘 빼는 시기를 놓치지 마라. 77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다 시험한번 생각해 보라. 행운의 숫자: 11, 39

42년생 꽉 둘을 만한 일이 생기나 좋은 일이다. 54년생 걸정보이는 다른 게 일이 쉽지가 않다. 66년생 옛 감정은 있고 회해하면 좋으리라. 78년생 가장 직장 자신사에 불편사가 생기나 곧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13, 34

43년생 문서상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5년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접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67년생 체용에는 어려웠던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9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멋을 내보내라. 행운의 숫자: 25, 35

44년생 잘못된 일에 자신을 괴롭히는 하루가 된다. 56년생 파도운 옥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68년생 친한 사이에 새로운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80년생 눈불운은 웃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20, 45

45년생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57년생 보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싫은 사람만 보인다. 69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81년생 바쁜 하루가 되리니 철저하게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16, 37

46년생 작은 병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58년생 절대 분수를 지켜야 화가 작아지리라. 70년생 자신의 인생설계에 변화가 온다. 82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여유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32, 41

47년생 호랑이에게 개 꾸이주는 격이다. 59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다. 71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못준다. 83년생 일회일비가 있지만 꼭 좋지만은 않으나 과목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 행운의 숫자: 12, 43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38>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Mr. Watson.

왓슨씨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A :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Mr. Watson.

B : May I have your name?

A : My name is Steve. I work for Delta Electronics Company.

B : Oh, Mr. Steve, welcome to our office.

A : 왓슨씨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B :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A : 제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데이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B : 아, 스티브 씨.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ork for ~ : ~에서 일하다.

당신의 형편에 맞춰 가능한 한 빨리 만나뵙고 싶습니다.

=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어떻게 귀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your company?

동아학원에서 5번 버스를 타시고, 시청에서 내리세요.

= Take bus No.5 from the Dong-A Institute and get off at the City hall.

오하요우 니혼고 <938>

よりにもよって皆(みんな)が見(み)てる前(まえ)で。

공교롭게도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A : 足を引(ひ)きずってどうしたの。

B : あ?痛(いたい)い。さっき階段で?(ころ)んだんだ。よりもよって皆が見てる前で。

A : どうして?急いでたの?

B : うん。議におくれそ うだつだから。走って階段を上のぼろうとしたら、

踏(ふ)み外(はず)しちゃった。なんともばつがわるくて。

A : 발을 질질 끌고 왜 그래(어쩐 일이야)?

B : 아, 아파. 아까 계단에서 굴렀어. 공교롭게도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A : 왜? 서둘렀어?

B : 응, 회의에 늦을 것 같아서. 달려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헛디뎠어. 정말 난처해서...

引(ひ)きずる: 질질끌다, 억지로 끌고가다